



서울도탈미술관에서 열리는 '제3회 BTS 국제학술대회' 특별전 '비욘드 더 신(Beyond The Scene)' 출품작. 박경진 작 'IDOL-카피한잔 드시고 하게요'

BTS와 현대미술

31일까지 토탈미술관 'Beyond The Scene' ... '70대 아이' 진영성 교수 등 참여

최근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방탄소년단(BTS) 팬클럽 아이(Army)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토탈미술관에서 지난 1일 개막한 '제3회 BTS 국제학술대회' 특별전 '비욘드 더 신(Beyond The Scene)'을 관람하기 위해서다.

전시회는 BTS의 노래와 활동에서 찾은 7가지 열쇳말(정체성, 다양성, 기억, 연대, 일상, 환경, 미래)과 관련한 현대미술 작품들을 선보인다. 31일까지 진행되는 BTS 팬이 아닌 관람객에게도 현대미술의 주요 작품들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계단부터 BTS와 연결된다. 계단의 QR코드를 찍으면 정규 1집 '다크&월드' 수록곡 '핸드폰 좀 꺼줄래'가 나온다. '셀카'만 찍지 말고 천천히 감상하자는 제안이다. 관람객을 가장 먼저 맞는 부지현 작가의 '루미니어스'는 유리창에 붙인 필름과 어우러져 보라빛을 발한다. 오징어잡이 배의 집어등을 상돌리에처럼

연결한 이 작품은 '빛에 빛을 더해 새로운 공간으로 관객을 초대한다'는 의미로 전시됐다.

김기라 작가의 '멈춤-비비디바비디부-내일은 검정'이란 작품을 볼 수 있다. 과거 지상파 방송사가 화면조정시간에 내보낸 TV 화면을 카펫으로 직조한 작품으로 '제로 어 룰록'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보라색 커튼을 두른 1층 전시관에는 미디어 아티스트 듀오 크립톤(황수경·염인화)의 작품 '워블(wobble)'이 설치됐다. 미술관 곳곳에는 최재훈 작가의 드로잉 25점이 걸렸다. BTS 리더 RM의 뮤직비디오 '포에버 레인(Forever Rain)'의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작업한 인연으로 선정된 작가다.

중층에는 RM이 "평소 흠모해오던" 작가라고 밝힌 문성식 작가의 회화 14점이 나란히 걸린 공간이 있다. RM이 지난해 공개한 자작곡 '바이시클'의 커버를 작업한 문성식은 이번 전시에 3~4

호의 작은 캔버스에 유채와 연필로 그린 신작들을 선보였다.

중층 전시장의 백미는 '70대 아이'로 유명한 진영선 고려대 교수는 '아카이브 포 방탄 유니버스-엠티 킴'이란 제목의 프레스코와 4폭 병풍을 선보이며 최대진 작가는 RM, 슈가, 제이홉이 부른 '땡'을 모티브로 한 벽화 '땡, 진실과 끝 사이'를 선보인다.

지층의 한 벽면은 안규철 작가의 작품 '1000개의 발'이 전시됐다. 한 번이 7cm인 정사각형 알루미늄판 1600개로 구성된 이 작품은 노을 풍경을 담았다. RM은 지난해 5월 안규철의 저서 '사물의 뒷모습'의 일부를 사진으로 공유했으며 당시 이 책의 판매량이 급증한 바 있다.

진명은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수어를 주제로 한 사진 작품을 제작했다. 여화학교의 도움을 받아 '소우주'의 가사 '한 사람에 하나의 별'을 수어로 표현했다. /연합뉴스

문근영 "감독은 외로우면서 자유로운 직업"

영화감독 데뷔...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단편 세편 상영



데뷔했다. 10일 오후 제26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리는 경기 부천시의 한 영화관에서 그가 연출한 단편 세 편이 처음으로 상영됐다. 문근영은 상영 이후 관객들과 대화 자리에서 "갑이 나고 무섭다"면서도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연기생활 24년 차인 문근영이 영화감독으로 나선 건 지인들과 바치 창작집단을 꾸리면서다. 문근영은 "작정하고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 일 아니다"라며 "감독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날 상영된 연출작은 '심연'과 '현재진행형', '꿈에 와줘' 등 러닝타임 9~15분짜리 작품이다. 모두 대사 없이 배우 표정과 몸짓, 음악과 조명으로 인물의 감정을 표현한다. 수중 촬영으로 구성된 '심연'에서는 문근영이 직접 연기도 했다.

문근영은 "첫 작품을 물 속에서만 촬영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대사를 할 수 없었고 이후 작품들도 대사가 없어졌다"며 "표정과 움직임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멤버들이 만든 작품이어서 그 나이에 가질 법한 고민과 생각들을 담았습니다. 다 같이 고민하면서 열심히 살아 보자고 위로하는 결말을 생각했어요."

세 작품에는 혼란과 좌절, 상실감과 그리움

같은 감정들이 고차한다. 문근영은 특히 빛을 표현에 중요한 요소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어둠과 갑갑하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서 빛을 희망 같은 존재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온전히 살아있으면 빛도 어둠도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배우가 느끼는 압박감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문근영은 "연기와 달리 연출은 혼자서 판단을 빠르게 내려야 했다"며 "감독은 정말 외로운 직업이라고 느꼈지만 자유롭기도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스크린으로 보니 단점들이 보이더라"며 "연기라도 곧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포자락 휘날리며' 덴마크로 떠나요

MBC 새 예능...김중국 등 5명 해외서 K-아이템 판매 한국 알리기

가수 김중국, 배우 지현우·노상현, 모델 주우재,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현 5인방이 '한류 전령사'로 덴마크로 떠난다.

황지영 PD는 최근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열린 MBC 새 예능 '도포자락 휘날리며' 제작발표회에서 "여행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밝혔다.

10일 오후 6시30분 첫방송된 '도포자락 휘날리며'는 K팝, 드라마, 패션, 운동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출연자 다섯 명이 해외여행을 하며 한국을 알리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첫 여행지는 덴마크로 정해졌다.

황 PD는 "접근성이 좋은 나라 대신 낯설고, 가기 힘든 나라를 선택했다"며 "덴마크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찾아가



무언가 전달하면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덴마크에 도착한 5인방은 현지인에게 고려청자 무늬로 디자인된 에어팟 케이스 등 전통 디자인과 현대생활을 결합한 K-아이템을 판매하며 현지인들의 반응을 살핀다. 해당 물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제 판매하는 기념품들이다.

황 PD는 "저희가 선정한 물품들은 전통 디자인을 모티브로 삼았고, 실용성도 고려했다"며 "그래

야 이런 것(한국 전통 디자인)에 현지인들의 진심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음식이면(현지인들의) 공감이 빠를 것 같았는데 물품이라 어떻게 공감대를 가져갈지 고민이 많았다"며 "그런데 물건을 찾는 사람들이(생각보다) 너무 많았고, 출연자들이 팀을 나눠(경쟁하며) 물건을 파는 것도 판전 포인트"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임영웅 전국투어 '아임 히어로' 전화·전석 매진

온라인 관람 티켓도 판매 중

가수 임영웅의 전국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 서울 콘서트가 전화·전석 매진됐다고 8일 소속사 물고기뮤직이 밝혔다.

임영웅은 지난 5월 열린 고양 콘서트를 시작으로 창원,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서울에서 이번 투어의 모든 콘서트를 전석 매진시킴으로써 티켓 파워를 과시했다.

이번에 매진된 서울 콘서트는 다음달 12일~14일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물고기뮤직은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을 위해 서울 콘서트의 14일 공연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과 인터파크 티켓에매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인터파크 티켓에매 사이트를 통해 이용권을 구매하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티빙 구독자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권은 인터파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